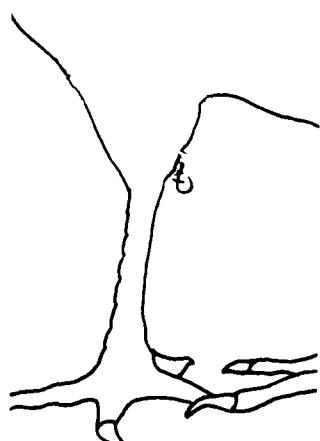


세계의 養鷄產業



인도편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여정수제공



1947年 영국으로부터 獨立되어 파키스탄과 분리된 인도는 면적이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의 약 15배나 되는 3,268,090KM²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고 인구는 5억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70%이상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83.5%가 힌두교를 믿는 힌두農業國으로 畜產과 林業에 옛부터 큰 비중을 두어 왔지만 60年代 중반부터 3개월간의 몬순氣候에 의존하는 벼, 보리, 밀의 농사에 치중을 하는 방향으로 농업 분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역시 畜產業은 인도의 產業發展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계속 發展되어 가고 있다. 1961년부터 1975년까지 각 家畜의 사육현황을 보면 아래의 表와 같다.

인도의 축산현황(단위 : 1,000)

연도	총종	1961-5	1973	1974	1975
닭	114,582	117,793	118,085	118,378	
오리	—	—	—	—	
칠면조	—	—	—	—	
소	175,726	179,400	179,900	180,269	
물소	51,873	59,000	60,000	60,767	
돼지	5,092	6,700	6,900	7,101	
면양	40,936	40,200	4,000	4,000	
산양	62,334	68,500	69,000	69,679	

동북부지역의 “다모아”계곡을 중심으로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고 中東부지역에서는 면양 산양 그리고 “암발라”, “마레코트라”, “나비” 그리고 “바린다”等 전국적인 分布로 닭을 기르고 있다.

1. 養鷄現況

1975년 말 현재 약 1억 2천만수의 닭을 기르고 있는 分布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72년부터 1975년 초까지 인도에 홍수와 가뭄이 연속된 피해로 인한 식량자원의 부족으로 사료가격은 2배로 계란가격은 3배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료생산에 타격을 주었고, 질병의

만연 그리고 닭을 마구 도살할 수 밖에 없었던 대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료회사와 양계장이 도산됨으로 60년대와 비교된 통계수치에는 낮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1975년 알맞은 자연조건으로 농작물은 종년이 되었고 모든 사정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면서 양계산물의 수요도 증가되고 정부당국에서는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양계산업을 복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1977년 현재에는 어느정도 체계화된 조직을 가지고 양계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1976년 발행된 인도^{養鷄年鑑}에 발표된 인도 양계생산물은 지난 15년동안 5배정도 증가되어 4억 2천 5백만\$이 된다고 하며 1980년까지는 7억\$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년간 계란 생산량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3배가 증가되어 80억개이고 1980년까지는 120억개를 목표로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인구 5억에 비하면 너무나 영세한 양계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970년 이후부터 品種改良, 飼料, 飼養, 管理, 市場流通過程 등에 세분화된 연구결과로 조직적이고 집약화된 양계산업으로 변해가는 인도의 양계발전 속도는 매우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2. 品種改良

인도 농림성에서는 외국 수입계에만 의존하던 양계산업을 탈피하고 좀 더 값싸고 좋은 성능을 지니는 실용계를 공급함은 물론 종계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이잘나가”위치하고 있는 인도중앙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가금육종계획에 따라 품종개량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최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인도 양계산업에 획기적인 발판을 만들었고 다른나라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 신품종은 다른나라의 우수계통과 비교하여 산육능력이나 산란능력에서 뛰지지 않는 능력의 것으로 산란계는 년간 산란수 220—230개 육계는 이나라 사양조건에 저 10주령에 1.5kg의

성적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도정부에서는 국산계를 보급할 목적으로 외국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野生鶴를 순화시킨 인도의 재래종인 “데 사이”라는 산란용 닭을 외국수입계통과 교잡해서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실용계로 만들어 주로 일반 양계 부업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료소비량이 적고, 작은 알을 낳지만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메추리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그 알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급여하므로 영양결핍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각 농과대학에서는 닭은 물론 메추리의 능력개량을 위한 연구를 의무화 하고 있어 더욱 능력이 우수한 닭들이 만들어지리라 생각된다.

닭의 능력개량과 동시에 외국의 병아리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아프리카 여러나라에 상업용 병아리를 수출하고 냉동된 닭고기도 아프리카의 해안에 접한 나라에 주로 수출을 하여 인도의 양계산업발전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외 다른지역의 양계생산물 수출경쟁에 있어서 손실이 생기는 업체는 전체적인 보상대책이 1978년까지 정부로 부터 수립되어 있어 더욱 안정된 양계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3. 養鷄協會의 活動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도양계협회는 인도 전역에 종계분양, 양계 사료의 생산조절, 양계 생산물의 처리등 양계에 따른 재반 문제에 관여하면서 산란계 및 육계의 경제능력 검정 사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1976년에는 “뱅골라주”에서 7회째 산란계 검정에 32계통이 출품되어 실시되었고 매년 4번씩 실시되는 육계검정도 역시 “뱅골라”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검정사업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크게 능력이 향상 되고 있어 모든 양계가들에게 대단한 신뢰와 참여를 얻고 있다고 한다

4. 飼料

60년대 전에는 2,000수이상의 양계 경영 규

모가 많지를 않았고 전업형태의 농가들은 주로 병원의 환자들을 위한 계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양계업이었기 때문에 완전배합사료도 없이 부업양계농가들은 모두 울타리도 없는放 솜로 농작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했고 전업형태의 농가에선 자가 배합사료를 만들어 사용했었다. 60년 이후부터 쌀거가 주된 사료 원료로 사용되어 완전배합사료가 만들어져서 시판하게 되었고 최근엔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 달팽이를 대량생산하여 어분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자원으로 사료에 이용하고 있다.

5. 疾病

“라니켈”지방에서 처음 뉴캣슬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당했던 교훈으로 인도에서는 뉴캣슬병을 라니켈병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라니켈병과 계두의 예방은 각 국립대학의 가축병원에서 일정지역을 책임지고 방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지금은 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염성 기관지염, 뇌척수염 그리고 전염성 호흡기병이 일부지역에서 발병하여 백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결과 전염성 기관지염에 대해서는 비오메드(BIOMED)라는 예방약을 만들어 냈지만 뇌척수염, 전염성 호흡기병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뇌척수염과 전염성 호흡기병에 대한 대책은 이를 병에 감수성인 닭을 개량하여 요소 요소에 이 감수성제통을 사육하므로 빨리 병의 전염 유무를 발견하여 다른지역과 차단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

인도의 양계산업에서는 주로 품종개량과 산업용 병아리와 닭고기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면서 또한 국민영양 문제를 중요시해서 닭고기는 냉동시키지 않고, 주일 이상常温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고 불량 도태계는 소세이지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기호성에 맞도록하여 시판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나라 보다도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양계산업이 이룩 되리라 생각된다.

청 량 리 가 축 약 품

회소식

○ 호흡기병 (C R D) 특·예약

○ 빨다리병 (노도상구증후군) 특·예약

호흡기예약중

○ 지방주문환영

서울 · 동대문구 전농 2동 597의 32
(한국육계회 연락처) ☎ 966-8780